극장가 불황의 그늘 … '아는 맛'으로 버틴다

최근 국내 극장가에 익숙한 영화가 잇따라 걸리고 있다. 이렇다 할 대작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소설 원작 영화, 리메이크 및 리부트(기존 영화의 캐릭터나 콘셉트를 살리고 새로운 이야기로 만드는 것) 영화 등 기존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작품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아예 예전 영화를 재개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줄어들면서 제작자도, 관객도 안전한 길을 택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베스트셀러·시리즈물이 대세

오는 22일 개봉하는 '언데드 다루는 법'은 스웨덴 작가 욘 A 린드크비스트가 쓴 동명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린드크비스트는 영화 '렛미인'(2008) '경계선'(2019) 두 작품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로 스웨덴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렛미인에서는 뱀파이어와 인간의 우정을, 경계선에서는 북유럽 신화 속 '트롤'을 현대 사회로 데려오며 초자연적 소재를 새롭게 풀어냈다.

'언데드 다루는 법'은 세상을 떠난 가족, 연인이 대규모 정전 이후 살아있는 시체로 되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일반적인 좀비물과 달리 죽음과 삶의 경계, 그 안에서의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휴머니즘 영화다.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공개된 이후 '노르웨이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아만다상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일찍부터 시네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작가가 직접 각본에 참여해 원작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24일 개봉하는 '검은 수녀들'은 '검은 사제들'(2015)의 두 번째 이야기다. 검은 사제들은 당시 약 544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오컬트 영화 중 드물게 흥행했다. 지난해 '파묘'가 한국 오컬트로 흥행의 꽃을 피운 만큼 '검은 수녀들'이 그 바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해운대'(2009)의 권혁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배우 송혜교 전여빈 이진욱 등이 출연한다.

영화 '검은 수녀들'

영화 '더 폴: 디렉터스 컷'

영화 '언데드 다루는 법'

영화관 찾는 관객 줄자 리메이크·재개봉·리부트 등 기존 IP 활용한 영화로 승부

'검은 수녀들', '색계', '도어즈' 이달중 속속 개봉 예정

황영미 영화평론가는 "영화에서 핵심이 서사인데 잘 알려진 문학을 영화로 만들면 이미 보장된 서사에 연출적 시각만 덧붙이면 된다"며 "감독 입장에서도 작업이 수월하고, 무엇보다 관객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어 투자에 안정적인 포션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8일에는 청춘 멜로와 사운드트랙의 결합으로 성공을 거둔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2008)이 한국판으로 공개된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높은 완성도와 아련한 첫사랑 감성, 피아노 배틀 장면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

◆'안전제일주의' 속 의외의 흥행도

'익숙한 영화' 현상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재개봉 영화 열풍과도 결을 같이한다. 지난해 9월 재개봉한 음악 영화 '비긴 어게인'은 관객 수 20만 명을 넘으며 흥행했다. 최근에 재개봉한 '더 폴: 디렉터스 컷'은 예술 영화임에도 입소문을 타 개봉 3주 만에 4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만 해도 '렛미인' '도어즈' 등이 재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주요 영화관도 '색계'(CGV)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롯데시네마) 등 명작을 재개봉하는 등 이에 가세하고 있다.

영화계 전반에 지속되는 '익숙한 영화' 풍토는 냉각된 영화 시장으로 인한 고육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영화관 관객 수는 1억2312명으로 2023년(1억2513명)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새로운 IP를 개발하려면 개발·홍보비가 많이 드는데 있던 작품을 하면 이 모든 비용이 대폭 감소한다"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투자에 소극적이면서 배급사들이 경쟁적으로 재개봉 판권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10년 뒤엔 베를린필과 경쟁할 것"

정재왈 서울시향 신임대표

"2035 미래 비전 프로젝트 구상 중 츠베덴 음악 색깔 존중하며 지원"

"10년 뒤 서울시향이 세계 최고 명문인 베를린 필하모닉의 경쟁 상대가 되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정재왈 서울시향 대표(61·사진)는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가 서울시향 창단 80주년이자 법인화 20주년이 되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의 10년'을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2035 미래 비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구상 중이며, 오는 6월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교향악단,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클래식 음악을 누리는 '모두를 위한' 교향악단, 지속 성장이 가능한 '혁신적인' 교향악단을 목표로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 확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정 신임 대표는 고양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금천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기관장을 지낸 문화행정 전문가다. 서울시향 대표 임기는 3년이다.

정 대표는 서울시향을 둘러싼 해묵은 문제를 차례로 해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먼저 그는 서울시향 노조와 단원 정년 제도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서울시향은 다른 국공립 예술단체와 달리 사실상 단원들에 대해 정년을 두고 있지 않다. 그는 "단원 정년 문제에 대해선 노조 측과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했으며, 같이 노력하자는 다짐이 있었다"며 "올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현재 공석인 악장을 포함한 단원 채용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올해 6명 정도의 단원을 추가로 뽑는 것을 목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채용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히 중요한 악장을 채용하는 건에 대해선 얌 판 츠베덴 음악감독과도 올해 자리를 채우는 데 힘써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월 취임한 츠베덴 음악감독의 지휘 스타일에 평단의 평이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휘에 깔린 다수의 평가와 반응이라면 츠베덴 음악감독과 얘기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면서도 "임단 5년 임기 동안엔 그의 음악적 색깔을 존중하며 지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향은 올해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국립오페라단과 공동 제작) 공연 등 굵직한 무대를 소화할 계획이다. 김수현 기자

"젊고 성장하는 대만 미술시장" … 호텔에 그림 사러 1만5000명 몰려

호텔아트페어 '원 아트 타이베이'

중저가 작품 위주로 활기 한국 작가·갤러리 선전 돋보여

지난 10일 찾은 대만 타이베이의 메트로폴리탄프리미어호텔. 이곳 1층 로비에는 입구부터 엘리베이터 앞까지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이날 호텔 10~13층에서 개막한 호텔 아트페어 '원아트타이베이'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이었다. 이 중 절반가량은 20~30대. 이날 만난 대만의 30대 여성 관람객은 "대만의 젊은층 사이에서는 좋아하는 미술 작품을 구입하고 소장하는 게 흔한 일"이라며 "오늘은 결혼식을 앞둔 친구에게 선물할 그림을 사러 왔다"고 했다.

올해 아트페어에 참가한 61개 갤러리 중 해외에서 온 비(非) 대만 갤러리는 절반가량. 그중 한국 갤러리 수는 열 곳에 달했다. 행사장에서 만난 신준원 조형아트서울 대표는 "대만 컬렉터들은 작품을 많이 구입하는 데다 한국 미술에도 관심이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했다.

호텔 아트페어란 말 그대로 호텔에서 열리는 미술 장터다. 컨벤션센터 등지에 가벽을 설치한 뒤 작품을 거는 일반적인 아트페어와 달리 호텔 아트페어는 몇 개 층의 객실을 통째로 빌려 전시장으로 활용한다.

관람객은 1만5000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의 훨씬 넓은 공간에서 나흘 동안 열린 프리즈 서울 관객이 7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뜨거운 열기다. 릭 왕 원아트타이베이 공동대표는 "세계 미술시장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만은 타격이 덜한 편"이라며 "미술을 사랑하는 문화가 있는데다 젊고 호기심 많은 고객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게 대만 미술시장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풍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일본풍' 그림이었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간 대만 컬렉터의 미술 취향은 다양해지고 있다. 2010년대 초중반 대만 컬렉터들이 한국의 단색화 작품을 대거 구입하는 등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커진 계단적인 예다.

이번 행사에서도 한국 미술의 인기는 높았다. 청작아트는 이기타, 백종은 등 젊은 작가의 조각을 비롯해 가져온 작품 중 절반가량인 12점을 판매했다. 대만 가오슝에 있는 대형 갤러리 JP아트센터 부스에 나온 비비 조(본명 조혜윤) 작가의 그림은 개막 당일에 대부분 판매됐다.

국내를 벗어나 대만에서 활로를 찾고 자리 잡는 한국 갤러리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백 엘갤러리 대표는 "6년 전부터 대만에 진출해 작품을 팔고 있는데, 이제는 단골손님도 많이 생겼다"며 "지난해 열린 아트타이베이에서는 갖고 나온 작품을 전부 다 판매하는 등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베이=성수영 기자

지난 10일 호텔 아트페어인 '원아트타이베이'에 입장하려는 관람객들이 대만 타이베이의 메트로폴리탄프리미어호텔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다. 원아트타이베이 제공

꼭 봐야 할 공연·전시

클래식 시네마 콘서트

'러브레터 & 냉정과 열정사이 시네마 콘서트'가 오는 19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두 영화의 주제곡을 선보이며 첼리스트 박건우 등이 합연한다.

연극 애나엑스

연극 '애나엑스'가 오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서울 LG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재벌 상속녀로 행세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애나'의 실체가 드러난다.

전시 아트 주얼리

전시 '아트 주얼리'가 3월 16일까지 서울 롯데뮤지엄에서 열린다. 빅토리아 여왕 초상화가 담긴 팔찌 등 5000년 보석사를 한자리에서 볼 기회다.

오늘의 arte.co.kr

예술인 QUIZ 일제부터 6·25전쟁을 담아낸 사진가

20세기를 대변하는 사진가로 일제강점기이던 1930년대 중반 만주부터 강원 강릉까지, 그는 10여 년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사람과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이후 6·25전쟁과 전후(戰後) 회복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조국이 처한 참혹한 현실을 꾸밈없이 담아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정답은 하단에)

티켓 이벤트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서울 더줄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의 2월 13~15일 공연에 아르떼 회원을 초대한다. 치매를 앓고 있는 70세 주인공 고춘자와 사라진 춘자를 찾는 가족의 이야기다. 오는 22일까지 아르떼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총 10명을 뽑아 티켓을 두 장씩 준다. 당첨자 발표는 24일.

arte.co.kr에서 각종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QUIZ 정답은 임응식)

꼭 읽어야 할 칼럼

시대의 어둠을 밝히려 한 르누아르

영화 '르누아르'는 남프랑스에서 삶의 마지막을 예술에 바친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이야기다. 그는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남프랑스의 밝은 풍경과 뮤즈 앙드레를 통해 예술혼을 불태운다. 그는 1, 2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사랑을 담은 작품으로 시대의 어둠을 밝히려고 했다.

영화평론가 황영미의 '프롬나드 인 시네마'

윤동주 유고시집 <하늘과…>의 진실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1948년 간행됐다. 최초본은 윤동주 3주기 추도식을 맞아 급히 제작된 10부로, 갈색 벽지를 표지로 사용한 임시본이었다. 이후 초판본이 완성되면서 정지용의 서문, 유영의 추모시, 강처중의 발문을 더해 정음사에서 정식 출간됐다.

'처음책방' 설립자 김기태의 '처음 책 이야기'